

WEF Weekly Stories

2025년 5월 8일, WEF 4차 산업혁명센터, 대한민국 경기도

[센터 웹사이트 보기](#)

* 본 자료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주 발간하는 Forum Stories 를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Forum Stories 발간일자: '25년 5월 2일)

1. 노동 시장과 미래 일자리



노동절(5월 1일)을 맞아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근로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국 내 산업화와 자급자족을 촉진하는 정책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직무를 채울 적합한 인재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미래의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살펴봅니다.](#)

- **미래 일자리 탐색을 돕는 새로운 도구:** 세계경제포럼은 '2025 미래 일자리 보고서(Future of Jobs Report 2025)'를 바탕으로 트렌드 분석, 지역 및 산업별 비교, 일자리 수요 및 필요 역량에서 중요한 변화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공개](#)했습니다.
- **AI의 직업 구조 재편으로 초급 직무들이 위협에 처했습니다:** AI 기반 도구의 확산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기존의 수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으며 특히 화이트칼라 직군의 초급 직무가 AI의 등장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노동절 특집에서는 최신 일자리 및 역량 동향을 소개](#)합니다.
- **근로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4가지:** 유연근무제, 새로운 기술 습득 기회 등 [전 세계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에서 바라는 4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는 비결을 안내합니다.
- **기술은 미래 일자리와 인재를 연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미래의 일자리에 맞는 인재 연결\(Matching Talent to the Jobs of Tomorrow\)](#)' 가이드북을 통해 기술을 활용해 근로자들이 적합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5단계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습니다. 그 [요약본](#)을 소개합니다.

근로자 4명 중 1명만 직장에 만족: 세계경제포럼의 '[성장하는 일터\(Thriving Workplaces\)](#)'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복지 향상은 전 세계적으로 최대 11.7조 달러(약 1경 5,600조 원)의 경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능의 시대(Intelligent Age)가 도래한 가운데 직장 내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봅니다. ([인터뷰 기사](#) / [라디오 인터뷰](#))

전 세계 현황:

- 인도에서는 다양한 인재 풀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재 규모가 다른 나라보다 거의 두 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 기업의 67%는 향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재 풀을 활용할 계획이며, 이는 글로벌 평균인 47%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은 디지털 기술 격차 해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고용주의 84%는 증가하는 디지털 및 기술 인력 수요에 발맞춰 직원 교육과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리더십, 사회적 영향력, 위기 대응 능력과 같은 소프트 스킬에 대한 수요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ore

2.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



불안, 우울, 섭식장애 등이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청소년 5명 중 1명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문제를 겪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의료 서비스의 과부하로 인해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솔루션,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이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살펴봅니다.**

- **정신건강 문제는 보건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경제적 위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맥킨지 건강 연구소(McKinsey Health Institute)의 분석에 따르면 뇌 건강 장애는 매년 세계 경제에 5조 달러(약 6,700조 원) 규모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규모는 2030년까지 3배로 증가할 전망으로 미래 노동력을 보호하려면 **더욱 과감한 협력과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 **도시 계획을 통해 시민들의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촉진합니다:** **자전거 도로, 녹지 인프라 등** 건강 중심의 스마트 도시 설계를 통해 비감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천만 명이 비감염성 질환으로 생명을 잃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문제를 키우고 있는 걸까요?**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Jonathan Haidt)'는 스마트폰과 여기에 설치된 '중독성 있는' 소셜미디어가 어린이 및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의 급증을 불러왔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휴대전화 없는 학교(phone-free school)'가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 **세계 각국이 스마트폰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는 만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했으며 브라질은 학교 내 스마트폰 전면 금지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처럼** **각국**

입법기관들은 급증하는 스마트폰 관련 문제에 대응하여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건 관련 뉴스 더 보기: ▲면역 체계의 노화가 암 치료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EU와 독일이 새로운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AI 헬스케어 혁신을 추진합니다. ▲토양의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보건 위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주요 글로벌 보건 이슈를 소개합니다.](#)

More

3. 에디터가 선택한 세계경제포럼의 주요 콘텐츠

- **이베리아 반도 지역의 정전 사태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은 정전 사태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에너지 인프라의 취약성이 다시 한번 화두에 올랐습니다. [에너지망의 사이버 보안 강화가 필수적인 이유를 살펴봅니다.](#)
- **무역 긴장, 부채 경고, 단결 촉구: 2025 세계은행-IMF 춘계 회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이슈들을 살펴봅니다.**
- **아시아 메가시티의 성공 여부는 형평성 및 위기 대응 능력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 ESCAP)가 발간한 새로운 보고서는 아시아의 거대 도시들이 오히려 경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도시와 도시화에 관한 최신 소식](#)을 전하는 월간 뉴스를 소개합니다.

- IMF는 관세 전쟁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도 경제 침체를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IMF는 최근 발간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금융 시장의 주요 동향](#)을 정리한 월간 뉴스를 소개합니다.
- 공급망 보안의 진짜 문제는 '수요망'에 있습니다: 모범 사례를 도입하고 다자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더 유연하고 안전한 디지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장수 경제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년을 누리려면 [건강과 경제적 안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산업,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More



Forum Stories newsletter

Bringing you weekly curated insights and analysis on the global issues that matter.

Subscribe today →